

준비 미흡, 의료인력·장비 수급 차질 동국대 일산병원 12월 개원 어려울 듯

빨라야 내년 3~5월... 공신력 추락 우려



◇외관공사가 완료된 동국대 부속 불교종합병원 전경.

12월 개원을 목표로 했던 동국대 일산 불교종합병원의 연내 개원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5월 준공, 12월 개원'을 대적으로 홍보했던 불교종합병원의 개원 연기는 건립 기금 마련에 동참했던 불자들의 실망은 물론 직원 채용 공포에 참여했던 응시자들의 불만이 겹치면서 동국대의 대외 신뢰도와 공신력 추락에 대한 우려까지 낳고 있다.

동국대와 학교법인 동국학원은 8월 28일 조계종 중앙총회 동국학원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세영)에 일산병원 개원 준비 현황을 보고하면서 "개원 준비 미흡과 의료전문인력 수급차질로 12월 개원은 불가능하며 빨라야 내년 3~5월경 개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8월 26일 열린 동국학원 제186회 이사회에서도 학교측은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의료장비구입과 시험가동을 하는 기간이 필요하며 연내 개원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이날 이사회는 일산병원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문제로 논란을 벌였으나 직제와 인원 등을 규정할 정관 개정안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전체 인원 576명 가운데 280여 명에 대한 채용을

결정하고서도 합격여부를 통보 못 하는 사태가 발생, 응시자들의 불만이 쌓여가고 있다.

동국대 홈페이지 게시판에도 여러 건의 항의성 글이 올라와 있다. "한번도 공식적인 게시 없이 발표를 2달이나 연기하고 있다" "이제는 아예 무기한 연기라니요? 아무

리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지만 너무나 처사 아닙니까?"라고 울분을 토했다.

동국학원 이사인 영배 스님은 이와 관련 8월 28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동국대뿐 아니라 교계의 숙원 불사로 많은 불자들의 기대를 받고 있는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현재까지 진행된 병원 건립 사업을 재검토하고 그 내용을 공문화하여 학내 구성원과 중단의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단 사무처장 장운스님도 "합격 여부를 통보받지 못한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대한 대책 등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식사동에 지하 2층 지상 12층 규모로 들어설 동국대 부속 불교종합병원은 1998년 5월 기공식을 갖고 1999년 10월 착공에 들어가 27일 준공식을 앞두고 있다.

권형진 기자 jenny@buddhapa.com

8월 27일 개원한 태고종 원로회의 초대 의장에 일우(宇)스님이 만장일치 추대됐다. 1927년 경북 청도에서 태어난 일우스님은 1943년 적천사에서 김용택스님을 은사로 득도하고 44년 동화사 강원을 수료했다. 스님은 대구 동화사 주지, 태고종 경부교구종무원장, 중앙종회의장 등을 역임했다. 다음은 8월 27일 가진 기자회견의 일문일단.

"종도 교육·재원 확보에 온힘"

태고종 원로회의 초대의장 일우 스님



◇원로회의 개원이 갖는 의미는?

"태고종은 전통종단으로서 수행과 경륜을 쌓은 원로들이 많이 생존해 있다. 또 이 원로들은 태고종 창종의 1세대로서 그 누구보다도 부흥수교(扶宗樹敎) 정신이 충만해 있다. 1세대들이 원로들이 앞장서 종단을 개혁시키고 이끌어 가는 견인차 역할

고 있기 때문에 종도들의 종단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도가 떨어지는 편이다. 따라서 재정 등에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제 종헌정법을 새롭게 정비하고 전 종도가 새로운 마음으로 환골탈태하겠다고 나선 만큼 종단이 새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전 종도가 힘을 모아야 한다. 우리 종단은 무엇보다도 출가때 다짐한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초발심을 견지할 수 있도록 종도들의 교육과 연수에 온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선교육 후득도' 제도가 정착되도록 함과 동시에 우리 종단의 가장 취약점인 이랄 수 있는 재원 확보에도 원로들이 솔선수범할 예정이다."

◇요즘 사회가 갈수록 각박해 경쟁이 심화되고 물질만능주의

불자들부터 자비행·봉사 많이 하길

을 하겠다는 뜻이다."

◆내분을 겪은 태고종이 신뢰 받는 종단이 되기 위해서 원로회의 역할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태고종의 원로들은 조계종과 실시하지 않고 계획이 확정된 후 사업시단계에서 주로 오염의 저감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입지의 타당성 등 근본적인 친환경적인 개발의 유도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입이 요청되는 제도다. 이 제도는 건설계획을 수립 확정하거나 사업을 인가·허가·승인·지정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것이다.

◆태고종이 새롭게 분발해야 할 부분은. "태고종은 승려수도 많고 사찰도 많지만 시설사업이 주를 이루

가 관을 치고 있다. 원로로서 불자들에게 당부할 말은.

"불자들부터 봉사를 많이 하고 자비행을 많이 했으면 한다. '무주상보시'라는 좋은 말을 누구나 다 알 것이다. 이것을 말로만 새길 것이 아니라 불자들이 대대적으로 실천했으면 한다. 마음공부로서 자신을 닦고 부처님말씀을 실천에 옮겨 사회를 맑게 해야 한다. 요즘같이 물질이 풍부한 시대에는 외부에 관심을 갖고 소유에 대한 집착이 경쟁적으로 심해지기 마련이다. 남보다 많이 가지려고 하는데서 불행이 온다. 물질에 치우친 삶을 경계해야 한다. 불자들이 본을 보인다면 이 사회는 밝아지고 한층 살기 좋아질 것이다."

이경숙 기자 gslee@buddhapa.com

'북한산 도로' 환경영향평가 미흡

감사원 지하수위 변동·회통사 인근 소음 조사안돼 불교계 평가기준·항목조정, 국민참여 등 바람직

다. 하지만 이들 평가제도들은 건설 계획이 이미 수립된 상황에서 이에 맞추어 형식적으로 실시되거나 건설 공사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이 불충분한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 시민 환경단체의 주장이다.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관통구간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는 천성산 인근에 있는 수많은 자연늪들을 평가대상에서 제외시켜버려서 말썽을 빚었다. 또한 수락산·불암산 관통도로의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수락산·불암산 관통도로 반대 운동을 하고 있는 노원도봉시민연대는 "배기가스 등 환경오염이 1백만

다. 하지만 이들 평가제도들은 건설 계획이 이미 수립된 상황에서 이에 맞추어 형식적으로 실시되거나 건설 공사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이 불충분한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 시민 환경단체의 주장이다.

다. 하지만 이들 평가제도들은 건설 계획이 이미 수립된 상황에서 이에 맞추어 형식적으로 실시되거나 건설 공사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이 불충분한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 시민 환경단체의 주장이다.

다. 하지만 이들 평가제도들은 건설 계획이 이미 수립된 상황에서 이에 맞추어 형식적으로 실시되거나 건설 공사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이 불충분한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 시민 환경단체의 주장이다.

다. 하지만 이들 평가제도들은 건설 계획이 이미 수립된 상황에서 이에 맞추어 형식적으로 실시되거나 건설 공사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이 불충분한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 시민 환경단체의 주장이다.

최근 감사원의 감사결과, 불교계와 환경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는 북한산 관통도로 건설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가 미흡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8월 26일 환경부는 "감사원이 북한산 관통도로 건설사업의 환경영향평가 검토한 결과 지하수위 변동 여부와 회통사 인근의 소음영향 등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감사 결과를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서에서 이산화질소의 환경기준(연간 0.05ppm) 초과를 억제하는 데 대한 건설회사의 대책도 불충분하다고 지적하고, 북한산 관통도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재검토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7월 22일 건설교통부에 △완공 후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환경기준 이상의 배기가스가 배출되는 지역에 대해 근본적인 저감 대책을 수립할 것 △길이 4km의 터널 건설이 지하수에 미치는 영향과 지하수 하강으로 인한 상부계곡 및 지표생물에 미치는 영향, 이에 따른 대책을 수립해 제출할 것 △회통사 인근 지역을 포함해 공사완공 후 소음영향을 조사하고 기준초과시

다. 하지만 이들 평가제도들은 건설 계획이 이미 수립된 상황에서 이에 맞추어 형식적으로 실시되거나 건설 공사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이 불충분한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 시민 환경단체의 주장이다.

다. 하지만 이들 평가제도들은 건설 계획이 이미 수립된 상황에서 이에 맞추어 형식적으로 실시되거나 건설 공사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이 불충분한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 시민 환경단체의 주장이다.

다. 하지만 이들 평가제도들은 건설 계획이 이미 수립된 상황에서 이에 맞추어 형식적으로 실시되거나 건설 공사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이 불충분한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 시민 환경단체의 주장이다.

다. 하지만 이들 평가제도들은 건설 계획이 이미 수립된 상황에서 이에 맞추어 형식적으로 실시되거나 건설 공사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이 불충분한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 시민 환경단체의 주장이다.

다. 하지만 이들 평가제도들은 건설 계획이 이미 수립된 상황에서 이에 맞추어 형식적으로 실시되거나 건설 공사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이 불충분한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 시민 환경단체의 주장이다.

다. 하지만 이들 평가제도들은 건설 계획이 이미 수립된 상황에서 이에 맞추어 형식적으로 실시되거나 건설 공사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이 불충분한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 시민 환경단체의 주장이다.

다. 하지만 이들 평가제도들은 건설 계획이 이미 수립된 상황에서 이에 맞추어 형식적으로 실시되거나 건설 공사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이 불충분한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 시민 환경단체의 주장이다.

다. 하지만 이들 평가제도들은 건설 계획이 이미 수립된 상황에서 이에 맞추어 형식적으로 실시되거나 건설 공사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이 불충분한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 시민 환경단체의 주장이다.

다. 하지만 이들 평가제도들은 건설 계획이 이미 수립된 상황에서 이에 맞추어 형식적으로 실시되거나 건설 공사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이 불충분한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 시민 환경단체의 주장이다.

다. 하지만 이들 평가제도들은 건설 계획이 이미 수립된 상황에서 이에 맞추어 형식적으로 실시되거나 건설 공사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이 불충분한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 시민 환경단체의 주장이다.

다. 하지만 이들 평가제도들은 건설 계획이 이미 수립된 상황에서 이에 맞추어 형식적으로 실시되거나 건설 공사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이 불충분한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 시민 환경단체의 주장이다.

다. 하지만 이들 평가제도들은 건설 계획이 이미 수립된 상황에서 이에 맞추어 형식적으로 실시되거나 건설 공사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이 불충분한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 시민 환경단체의 주장이다.

다. 하지만 이들 평가제도들은 건설 계획이 이미 수립된 상황에서 이에 맞추어 형식적으로 실시되거나 건설 공사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이 불충분한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 시민 환경단체의 주장이다.

다. 하지만 이들 평가제도들은 건설 계획이 이미 수립된 상황에서 이에 맞추어 형식적으로 실시되거나 건설 공사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이 불충분한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 시민 환경단체의 주장이다.

다. 하지만 이들 평가제도들은 건설 계획이 이미 수립된 상황에서 이에 맞추어 형식적으로 실시되거나 건설 공사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이 불충분한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 시민 환경단체의 주장이다.

마음 밝히는 참선 도량



공생선원

우리는 공생공생의 도리를 알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우주와 내가, 자연과 내가 모두 함께 더불어서 사는 이치를 알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일체 만물이 나를 위해서 존재함을 알면 세상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나를 알고, 세상과 함께 사는 소중함을 깨닫고자 참선 수행함이 바로 공생선원이 나아가고자 하는 길입니다.

강좌 개설 | 참선반, 참선 입문반, 경전반, 기본교육

공생선원 9월 8일 문을 엽니다

공생선원에서 참선을 하면 본래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래마음을 되찾는 지름길인 참선을 통해서 자기의 마음을 밝히고,

더불어서 자기를 믿고 사는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서울시 도봉구 쌍문2동 653번지 삼환프라자 708호, 전화 900-2448

인생을 바꾸는 이롭다름 집

아바타코스

당신 마음의 무게는? 천근, 만근??

깃털처럼 가볍게 사십시오!

지금 당신을 진정한 행복/풍요/건강으로 초대합니다.

입지만 강력한 마음수련 여행 - 해산스님과 함께 하십시오

해산아바타 센터 011) 606-1976 www.haesanaavatar.com
세이아바타 센터 02) 782-0022 www.sayavatar.com